

'왜란' 참상 전하는 난중기록들

《난중일기》·《징비록》은 국보... 포로생활 체험기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120년이 지난 1719년 (숙종 45)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신유한(申維翰)은 그의 일기 《해유록(海遊錄)》에서 당시 일본의 대판(오사카) 시중에 《퇴계집》을 비롯한 우리나라 명현들의 문집이 널려 있었다고 전하면서, 《징비록(懲毖錄)》이나 《간양록(看羊錄)》같은 임란관계의 "비밀스러운 기록들"이 일본에서 출판되어 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통탄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개인 일기류는 크게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난중에 겪은 참상이나 전황을 기록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난중에 왜군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가 억류생활을 했던 기록이다. 유명한 이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비롯해 《징비록》·《쇄미록(瑣尾錄)》·《용사일기(龍蛇日記)》·《서정일록(西征日錄)》 등이 전자에 속하고, 후자로는 《간양록》을 비롯, 《금계일기(錦溪日記)》·《정유피난기(丁酉避難記)》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난중일기》와 《징비록》은 너무도 유명해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전자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진중일기로, 왜란이 일어난 다음달인 1592년 5월에서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전달인 1598년 10월 7일까지 약 7년에 걸친 기록이다. 《난중일기》의 친필 초고본(국보 76호)은 《임진일기》·《병신일기》·《정유일기》 등등 그해의 간지를 따서 모두 7책 205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1795년 (정조 19) 왕명에



이충무공의 《난중일기》 초고본. 연도별로 모두 7책 205장으로 이뤄져 있다. (국보 76호)

의해 《이충무공전서(奎書)》(전14권 8책)가 편찬·간행되면서 《난중일기》란 이름으로 전서의 제5~8권에 수록됐다.

《징비록》은 난중에 도체찰사로 활약했던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 뒷날을 경계"하는 뜻에서 왜란의 배경과 전말을 적은 귀중한 기록이다. 《징비록》의 친필 초고본 역시 국보(132호)로 지정돼 있는데, 1633년(인조 11) 편찬된 《서애집》에 수록되었다. 《징비록》은 그뒤 1647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이것이 일본에 흘러들어가 1695년(숙종 21) 교토(京都)에서 출판되었던 것이다.

《쇄미록》은 뒷날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의 아버지인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일기로 1592년 7월에서 1601년 2월까지 전후 9년에 걸친 기록이다. 그는 전라도지방을 여행하다 임진왜란을 만나 충청·강원 일대를 전전하며 난리를 겪어냈는데, 그 동안에 보고 듣고 체험한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각지의 전황, 의병들의

활약상 등을 치밀하게 적고 있다. 또 《용사일기》는 임란 당시 경상남도 초유사 김성일의 막료였던 이노(李魯, 1544~1598)의 난중기록이고, 《서정일록》은 왜란 당시 해서지방(황해도)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전 이조참의 이정암(李廷巖, 1541~1600)의 난중일기이다.

한편 《간양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전라도에서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3년여만에 귀국한 강항(姜沆, 1567~1618)의 일본견문기로 1656년(효종 7)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출판됐다. 《금계일기》(필사본·보물 311호)의 저자 노인(魯認, 1566~1623)도 정유재란 때 남원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명나라로 탈출했다. 그밖에 《정유피난기》(필사본)의 저자 정호인(鄭好仁) 역시 정유재란 때 고향인 전라도 함평에서 일가족이 함께 피난을 가다가 왜군에게 붙잡혀 일본에 끌려갔다 생환했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20호 / 1997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막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표지 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 548-5420,
F. 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그 책 쓸만해?'

원서생필령 · 운문 · 영한번역

박운정 / 번역가
TEL/FAX 723-4647 B·P 015-103-9200

좋은 느낌

빈/칸/만/들/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